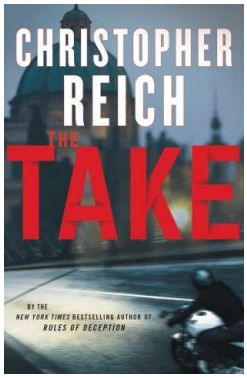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TAKE
가제 : 몫
저자 : Christopher Reich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8년 1월 16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긴장감, 소동, 드라마가 페이지마다 스며 나온다. 판도를 바꿔 놓을 이 강력한 소설에 허투루 낭비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 베스트셀러 *1*위 소설 『*The Lost Order*』의 작가 스티브 베리**

치밀한 계획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눈깜짝할 사이에 원하는 것을 털어내는 두 사람이 의도치 않게 서로의 적이 된다. 한때 같은 패거리로 활약하면서 누구보다 서로의 실력을 잘 꿰뚫고 있는 티노 콜루치와 사이먼 리스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직이 와해된 후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두 사람은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희대의 도난 사건으로 썩 반갑지 않은 재회를 한다. 티노와 은밀하게 접선하여 일을 맡긴 미국인,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러시아인들과 이 혼란스러운 도난 사건에 끼게 된 사이먼까지, 영화 <본 아이덴티티>를 연상케 하는 치열한 액션, 음모가 가득한 스릴러 소설이다.

스물일곱, 사이먼은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뛰어난 두뇌 덕에 금새 돈과 사람을 다루는 실력자로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위 1 퍼센트 VIP 고객들만 상대하는 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부유층의 투자와 재산 관리를 돕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은행 일이 천직인 줄 알았건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이먼은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깨닫는다. 아들이 학비를 몰래 빼돌려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고객의 하소연에 왠지 호기심을 느끼고 뒤를 슬쩍 캐본 것이 다였는데, 금세 아들과 밀거래한 마약업자를 잡아들이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이후에도 회사 직원의 횡령을 의심한 기업 간부의 고민이나 새파랗게 어린 애인이 개인 금고를 털고 있는 것 같다는 어르신 고객의 심각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하며 사이먼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는 물론, 어떤 일을 '즐기는지' 제대로 파악했다. 그 재능을 십분 발휘하기로 마음먹은 사이먼은 마르세이유까지 흘러 들어 위험한 일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티노와도 그 시절에 만났다. 하지만 이 모

든 일들은 이미 5년도 더 된 과거일 뿐, 제대로 뒤통수를 치고 등을 돌린 티노와 뜻하지 않게 만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어떤 루트로 티노의 존재를 알아냈는지도 알 수 없는 미국인은 그에게 파리 여행 중인 사우디 왕자와 가족들을 타깃으로 지목했다. 한 번 해외여행을 나오면 최소 100만 유로는 쓴다는 의뢰인의 말은 일주일 후 사실로 드러났지만 미국인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방. 그것만 빼앗아준다면 나머지 현금은 '수고비'로 가지라는 것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였다. 세 명의 아내와 열 명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파리 곳곳을 누비며 명품 쇼핑에 흠뻑 빠진 왕자의 뒤를 며칠 밟으며 범행 계획을 세운 티노는 이들이 출국하는 날 마침내 작전 실행에 나선다. 다섯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일행을 가로막아 돈과 서류가방을 털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9초. 총소리도 비명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시각, 사이먼은 소더비 경매장에 모습을 나타낸 러시아 부호 곁에 서 있었다. 돈 냄새 풀풀 날리는 그와 몇 마디 나눈 뒤, 서둘러 경매장을 빠져 나온 그의 뒤를 덩치 큰 남자들이 따라붙는다. 내부에 머문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데 쫓겨가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고도 남을 이유가 있었다. 무사히 빠져 나온 그의 주머니에는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던 300만 달러짜리 시계가 들어 있었다. 영국 최대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며칠 전 도둑 맞은 고객의 시계를 되찾아온 것이다. 화려했던 시절을 정리하고 영국에 조용히 살면서 보험회사며 은행, 영국 비밀정보부의 요청이 있을 때 몇 건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던 사이먼에게 프랑스 경찰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을 의뢰한다. 사우디 왕자의 돈을 털어간 아주 대범한 도둑들을 잡아달라는 요청인데, 그들이 원한 것 역시 돈이 아니었다. 전 세계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편지가 든 서류가방이 되찾아와야 할 물건이었다. 범행 수법과 단서로 수년 전 자신을 배신한 티노의 소행임을 알아낸 사이먼은 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실력을 떠나, 그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잡아야만 한다.

티노에게 편지를 훔치도록 한 미국인은 CIA로 밝혀지고, 빼앗으려던 러시아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사건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사이먼을 감옥에 가도록 한 것으로 모자라 그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던 코스타, 그리고 조용히 재기한 사이먼은 서방 세계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편지를 찾기 위해 숨막히는 대결을 벌인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라이(Christopher Reich)는 『Numbered Account』와 'Rules' 시리즈(『Rules of Deception』, 『Rules of Vengeance』, 『Rules of Betrayal』), 『The Devil's Banker』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스릴러를 발표해온 소설가다. The Patriots Club으로 2006년 국제 스릴러 작가상 최우수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제목 : ALL THE LITTLE CHILDREN
가제 : 세상의 끝에서 만난 아이들
저자 : Jo Furnis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아마존 '킨들 퍼스트 셀렉션*(Kindle First Selection)*'으로 출간, 아마존 베스트셀러 차트 진입**
*** "디스토피아 소설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가치관이 과연 그 소수가 자신의 아이가 되어도 지켜야 하는 것인지 파헤친, 인상적인 작품"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Vanishing Year*』의 작가 케이크 모레티**
*** "정말 환상적인 책. 『더 로드』의 페미니스트 버전이다."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Baby Doll*』의 작가 홀리**

평생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주말 중에 단 한 번,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룬 뒤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단단히 벼른 나들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을 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한다면, 불만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잘 나가는 사업가로 해외에 지사까지 운영하며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말린은 일하는 엄마들 모두가 느끼는 것보다 곱절로 깊은 죄책감을 털어보고자 공기 좋은 숲 속 캠핑을 계획한다. 이미 중국 공장에 문제가 터진 것을 보고 출발한 터라 영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인터넷 접속은 물론 휴대전화 수신도 잘 안 되니 조바심부터 났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시간들을 벌충하려고 온 여행인데, 여행지에 와서는 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자체도 너무 짜증이 났다. 똑똑한 큰 아이와 둘째 딸, 늘 활기찬 개구쟁이 막내 아들과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돌봐준 시누이 조니, 그리고 조니의 십대 딸, 막내 아들의 같은 반 친구까지 일곱 명의 대식구가 벼르고 별러 온 캠핑이었다. 햇살 좋은 8월의 어느 주말, 깔깔대는 막내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린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캠핑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본다. 딱히 직장도 없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도 없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지쳤는지 '혼자 조용히 있을 시간'이 필요하시단다. 큰 애가 겨우 아홉 살이고 아직 챙겨줘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남편은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을 잘 챙겨주는 타입도 아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요구대로, 말린은 아이들과 캠핑을 와 있는 동안 남편이 짐을 챙겨서 한동안 따로 살겠다는 말에 동의했다. 말린에게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캠핑이었다.

차에 잔뜩 싣고 온 짐을 풀고 솜씨 좋고 손 빠른 시누이 조니가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막내는 숲 속에 줄지어 선 나무 위로 겁도 없이 기어 올라간다. 잠시 오르다 말 줄 알았던 찰리는

꽤 높은 곳까지 쭉 올라가고 아이를 발견한 멀린은 어서 내려오라고 밑에서 고함을 지른다. 그런데 찰리의 반응이 좀 이상했다. 높은 곳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갑자기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획 돌려가며 다른 곳들을 살폈다. 이상한 낌새를 챈 형, 누나들도 무슨 일이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들려온다. "불이 났어. 사방에 온통 불이야."

찰리가 본 건 불과 연기에 휩싸인 마을이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외진 캠핑장에 멀린의 가족들이 와 있는 동안, 곳곳에서 집들이 불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인근 지역 전체로 번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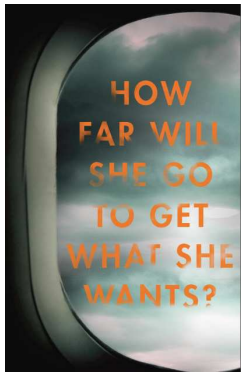
비상 상황임을 직감한 말린은 비상 상황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달려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마을 곳곳에서 죽은 채 쓰러진 사람들만 가득했다.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닌 끝에, 멀린은 이 모든 사태가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는 뉴스를 마침내 확인한다.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이 잔혹한 테러 집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살상용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였다.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 바이러스인지는 낙엽처럼 쓰러져 있던 사람들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한다.

말린과 조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빠져나가기 전, 낯선 아이 하나가 형편없는 몰골로 찾아온다. 처음 본 이 아이는 같은 캠핑장에서 지내다 혼자 남은 아이였다. 외면할 수 없어 그 아이까지 챙기기로 했지만, 곳곳에서 다른 아이들도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다. 엄마 노릇보다 사업을 이끄는 경영자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말린은 어느 순간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는 모두의 엄마가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린은 이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자신만 믿고 따르는 이 아이들 중에 직접 낳은 세 아이들을 무조건 먼저 구해야 할까? 희생자가 따를지언정 모두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할까? 웃음과 햇살이 가득하던 곳에서 음울하고 절망적인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캠핑장에서, 말린은 잔인한 선택의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어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생존을 위한 사투와 '엄마'의 존재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나타내는 힘을 말린의 시선에서 따라간다.

<저자 소개>

조 퍼니스(Jo Furniss)는 BBC에서 10년간 방송 기자로 일한 후 스위스, 카메룬, 싱가포르 등에 살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모노클(Monocle)」, 「스위스 뉴스」 등에 기사를 게재해 왔으며 2015년에는 싱가포르 작가들을 위한 온라인 문학잡지 SWAG를 창간했다.



제목 : THE PERFECT GIRLFRIEND
가제 : 완벽한 여자친구
저자 : Karen Hamilton
출판사: Wildfire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르비아, 대만 판권 계약 체결**
***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여자, 비뚤어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엘리자베스라는 이름 대신 중간 이름인 줄리엣을 새 이름으로 선택한 여자는 이름뿐만 아니라 인생도 완전히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파일럿인 남자친구 네이트가 헤어지자고 선언하고, 늘 꼭 붙어 지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줄리엣의 짐을 전부 챙겨 런던과 떨어진 곳, 리딩에 새로 머물 집까지 구해주고 돌아섰지만 그저 일시적인 변덕이 분명했다. '참고 기다릴 것. 그리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것.' 줄리엣은 리딩의 낯선 건물, 낯선 방 안에 짐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서던 네이트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되뇌었다. 어차피 네이트는 남편이 될 테니까. 이 정도 참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냥 계획한 대로 잘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줄리엣의 계획 중 가장 큰 부분은 네이트가 다니는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는 것이다. 시험에는 합격한 지 꽤 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열심히 따라가며, 비행기에 오를 날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이트가 알게 된다면, 분명 감동 받을 게 분명했다. 이제 헤어진 지 6개월 된 지금, 줄리엣은 그와 처음 사귄 작년 7월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생각이다. 자신은 네이트 곁에, 네이트는 자신 곁에.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런던에서 승무원 교육이 끝나고 네이트의 비행 일정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면 줄리엣은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곤 했다. 네이트는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 등등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줄리엣의 흔적을 지우고 친구도 다 끊었지만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다. 늘 깔끔하게 치워진 집 안, 늘 한결같이 불이 밝혀진 작은 열대어 어항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채워진 네이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며 흐뭇해하고, 욕실에도 들어가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최근에 감기에 걸린 네이트가 약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약병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이곳, 이 공간이 줄리엣에겐 '집'이었다. 네이트가 6개월치 방세를 선납했다고 알려준 리딩의 집은 그저 잠시 머무를 곳일 뿐이었다.

줄리엣이 네이트의 집으로 이사를 온 건 공항 근처 작은 호텔 리셉션에서 처음 만나고 딱 5주가 지난 날이었다. 밤 늦은 시각에 혼자 리셉션에서 근무하던 줄리엣은 파일럿 복장을 한 남자들을 비롯해 유니폼을 차려 입은 사람들 한 무리가 로비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갛게 웃는 얼굴을 한 파일럿 한 사람이 성큼 다가와,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된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하

며 혹시 빈 방이 남았냐고 물었다. 줄리엣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대는 것을 느끼며 그와 동료들에게 방을 배정했다. 그런데 파일럿은 잠시 주저하더니, 근처에 괜찮은 바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혹시 밤새 근무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줄리엣은 늘 동화책의 결말을 꿈꿨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런 결말로 끝나기를, 공주님과 왕자님은 헤어질 일 없이 서로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했다. 네이트는 이 동화에서 자신의 왕자님이 될 사람이고, 누구도 정해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사람인지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방황할 수 있다. 그냥 기다리고, 당신이 와야 할 곳은 여기라고 잘 알려주면 된다. 줄리엣은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며 네이트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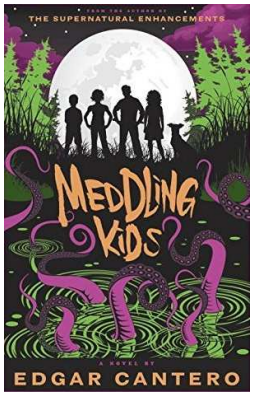
줄리엣의 현재 생활은 어릴 때 사고로 익사한 윌이라는 네 살짜리 꼬마의 이야기와 중간중간 뒤엉킨다. 줄리엣보다 여섯 살 어린 윌은 늘 성가시게 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귀찮은 동생이었다. 바구니에 먹을 것을 잔뜩 사 들고 줄리엣과 윌이 강가로 소풍을 갔던 날, 윌은 물에 빠뜨린 음료수를 꺼내겠다고 난리를 부리다가 그대로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과연 윌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불운한 사고였을까?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던 줄리엣을 차마 꼭 안아주지 못했던, 이후 환각 증상에 시달리고 늘 불안에 휩싸여 살다가 저 세상으로 떠난 엄마는 무엇을 직감했을까?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을 잡아 끄는 악몽 같은 그 날에 기억 속에 갇혀 지낸 줄리엣에게 네이트는 수렁에서 꺼내준 진짜 구원자였다. 줄리엣이 절대 그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가족과 친척 외에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던 줄리엣은 승무원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도 계획적으로 친해지고 영리하게 활용하며 철저히 계산된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네이트가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줄리엣의 집착은 점점 더 광기를 더해가고, 인내는 바닥이 나기 시작한다. 어쩌면 네이트가 그녀의 목표가 된 것은 훨씬 더 오래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들끓는 증오, 집착의 감정으로 빚어진 끔찍한 결말과 줄리엣의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숨 쉴 틈 없이 펼쳐지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런 해밀턴(Karen Hamilton)은 어린 시절을 앙골라와 짐바브웨,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수년 간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한 후, 최근 파버(Fable) 출판사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제목 : MEDDLING KIDS
가제 : 블라이튼 탐정 클럽
저자 : Edgar Cantero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판타지, 어드벤처

*** 개별서점 베스트셀러 *14*위, 뉴욕타임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베스트셀러, *3*쇄 판매 예정**
*** "제목만큼 영리한 스토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배꼽 빠지게 웃긴 이야기로 가득하다." – 「*USA* 투데이」**
*** "작가의 상상력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한 번 속도가 붙으면 목이 부러져라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신나게 즐길 수 있다." – 」북리스트」**

여자 아인지 남자 아인지 언뜻 봐선 잘 구분이 안 되는 앤디, 호러물이라면 뭐든 좋아하는 괴짜 네이트, 총명한 두뇌를 가진 네이트의 사촌 케리, 잘 생긴 외모에 운동 광인 피터, 열두 살짜리 친구들 넷과 독일 혈통의 타고난 사냥개 션까지 총 다섯은 1977년, '블라이튼 탐정 클럽'의 대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호기심 많고 신기한 건 뭐든 직접 가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정신없고 시끄러운 아이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 혹은 열정을 적극 활용하여 오리건 주의 작은 광산 마을 블라이튼의 사설 탐정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숙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탐정 활동에 전념하기로 한 이 다섯 멤버는 마을의 사소한 골칫거리부터 희한한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주민들에게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이 뛰어든 마지막 사건, 일명 '슬리피 호수의 괴물 사건'을 끝으로 탐정 클럽은 해산했다. 흉악한 사기꾼으로 드러난 범인을 붙잡은 것으로 이 사건도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 사건은 네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 밤의 기억,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아이들은 악몽에 사로잡힌 채 남몰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사건의 범인으로 징역형을 받은 남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이들을 홀린 악몽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날 밤, 호숫가 맨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무엇이 10년이 넘도록 아이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한 명은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도록 만들었을까? 이 끈질긴 의혹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기로 한 그 맨션으로 다시 가야만 한다.

1990년, 미국 여러 지역에서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 앤디는 13년 전 슬리피 호수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위클리가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온 당일에 바로 그를 만나러 간다. 열여섯 살에 배낭 하나 매고 훌쩍 집을 나온 앤디는 어느 새 스물다섯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군화 같은 두툼한 부츠에 헐렁한 바지, 아무 무늬 없는 민소매 셔츠까지 선머슴 같은 외모는 여전했다. 확 바뀐 세상 풍경에 취해 얼떨떨해하던 위클리의 뒤를 바짝 따라 붙다가 한적한 곳에서 그를 불러 세운 앤디는 보자마

자 알아보는 위클리를 보며 활짝 웃는다. 강도, 사기, 납치, 아동 협박 등 너저분한 죄명이 씌워진 닳고 닳은 범죄자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그는 이미 꾀죄죄하고 기력도 없는 늙은이가 다 되어버렸다. 신문에서 떠들어댄 것처럼 13년 전, 위클리는 그 호숫가 고급 맨션에 사는 돈 많은 부자들을 겁먹게 만들어서 강도 짓을 하기로 계획하고 일부러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 바람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앤디는 그가 탐정 클럽의 활약으로 붙들린 날, 분명 그 맨션에 찾아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문 어디에도 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오싹한 현상, 앤디는 그 위클리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귀신 복장을 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실제로 인간도 동물도 아닌 미스터리한 존재가 그 장소에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 앤디가 매섭게 따지기 시작하자 위클리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대체 그 존재가 무엇이길래 13년의 징역형까지 받아들이게 만든 걸까?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지명수배자 신세가 다 지긋지긋해진 앤디는 옛 친구들을 호출한다. 탐정 클럽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뉴욕의 생물학도 케리, 환각 증상 때문에 정신과 병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이트, 그리고 사냥개 션의 손자 팀까지 피터를 제외한 네 탐정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탐정 클럽 대장이던 피터는 준수한 외모와 매력 덕분에 할리우드 인기 배우로 성공했지만 몇 년 전, 스스로 약을 먹고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앤디는 친구들에게 위클리가 진범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13년 전 겪은 충격적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체 모를 진범을 잡고 너무 질긴 이 악몽에서 모두 깨어나자고 제안한다. 혼자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똘똘 뭉친 친구들, 그리고 텔레파시 능력을 갖춘 사냥개가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다시 패기와 호기심, 열정을 장착한 세 사람과 팀은 다시 블라이튼으로 향한다.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신들, '스타고라잇'이라 불리는 기이한 생명체와 사악한 악마들, 팔다리가 여섯 개인 괴물 등 만화가로도 활동 중인 작가답게 설명만으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묘사된 각종 괴생물체가 흥미를 더하고 폭소를 유발하는 장치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즐거움을 선사한다. 애완견이라기보다 유능한 1인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케리의 개 팀의 활약상도 볼 수 있다. 러브크래프트 식 호러로 X세대가 공통적으로 느낀 정서를 잘 포착한 이야기로, 판타지 소재에 지극히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이 결합된 독특한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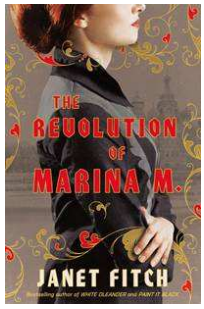
<저자 소개>

에드거 칸테로(Edgar Cantero)는 바르셀로나에서 작가 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데뷔 소설 『The Supernatural Enhancements』(2014)는 반스 앤 노블(Barnes & Noble) 선정 '디스커버리 픽(Discovery Pick)'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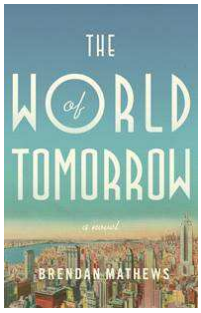
THE WORLD OF TOMORROW (내일의 세상) by Brendan Mathews

Three Little, Brown and Company and Mulholland Books titles make Entertainment Weekly's roundup of "Fall's 20 Must-Read Books"

THE REVOLUTION OF MARINA M. by Janet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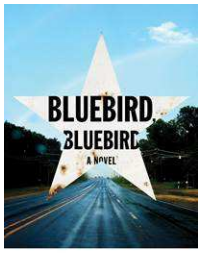


THE WORLD OF TOMORROW by Brendan Math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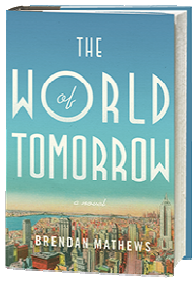
Rights licensed: Australia/New Zealand/Simon and Schuster Australia

BLUEBIRD, BLUEBIRD by Attica Locke



Attica Locke

Rights licensed: Spain/Alianza, and UK/Serpent's Tail



Rights licensed: Australia and New Zealand/Simon and Schuster Australia

It's publication week for THE WORLD OF TOMORROW, and we're pleased to share the latest praise along with the details of our sweeping marketing and publicity campaign, below.

"Entertaining . . . outsized . . . *The World of Tomorrow* views its teeming cast of characters as though from the observation deck of one of the city skyscrapers that seem to 'burst from the pages of a comic book.' . . . Reveling in bold twists and fantastic coincidences, Mathews's big, expressive debut inhabits a world that's neither of the past nor the future but wholly of the imagin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Mathews writes extraordinarily well . . . His plot, rife with geopolitical intrigue, is nicely calibrated . . . His characters are likable and clever . . . They're Depression-weary, ready to transcend 'the sordid history of the Old World and looking boldly to the future.' This is an expansive theme, and from it, the first-time author has carved a commendable novel."
—***The Minneapolis Star Trib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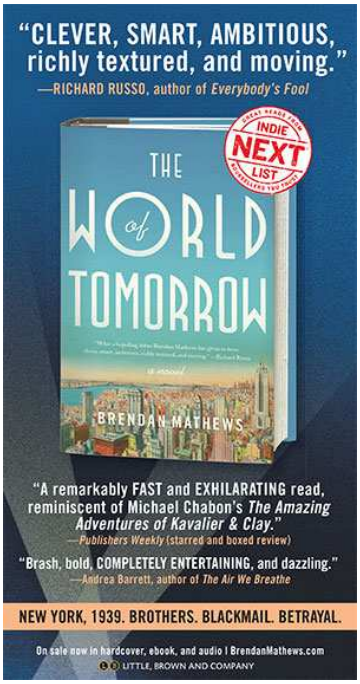
"A promising writer . . . Mathews is an able prose stylist, and breathing life into so many diverse characters is no mean feat . . . The possibility of dramatic transformation amid historical ferment is at the heart of *The World of Tomorrow*, a fat novel stuffed with well-drawn characters grappling with different versions of themselves . . . Mathews has a flair for bringing street scenes to life, and his hopscotching narrative—from a Harlem jazz joint to a Bowery art studio to a Fifth Avenue palace—makes for an enjoyable tour of a vanished city . . . An affable debut novel."
—***The Washington Post***

Elsewhere,
USA Today recommends **THE WORLD OF TOMORROW** in the "New and Noteworthy" Column,
Check out Brendan's interview on **NPR's Weekend Edition Sunday** (9/3)
WBUR gives the book a rave review

The buzz continues with reviews coming shortly from ***The Chicago Tribune***, ***NPR.org***, and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9/17)

ADVERT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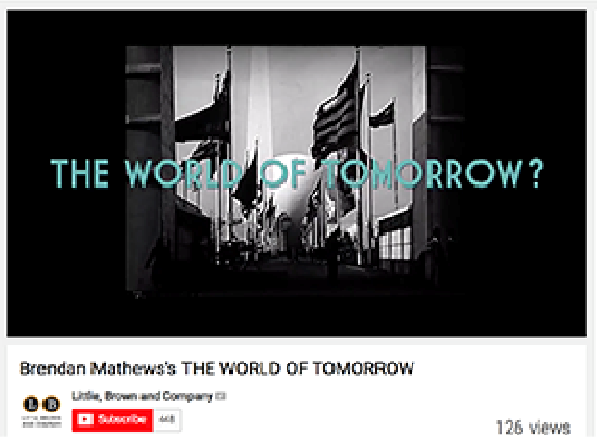
- **Shelf Awareness Pro** (Ran 6/13, 6/16, and 6/19—805 total clicks, 118K impressions)
- **New York Times Book Review** (Runs in 9/10 issue with premium placement adjacent to 'Contributors'—1.24 million national circulation)



- **Lit Hub email and desktop ads** (Expecting the email ad to run on pub date 9/5. Approximately 100K impressions. Desktop ads will run throughout September.)
- **Social Media Advertising** — including boosted posts on Facebook and Instagram for book trailer, graphics, and reviews

MARK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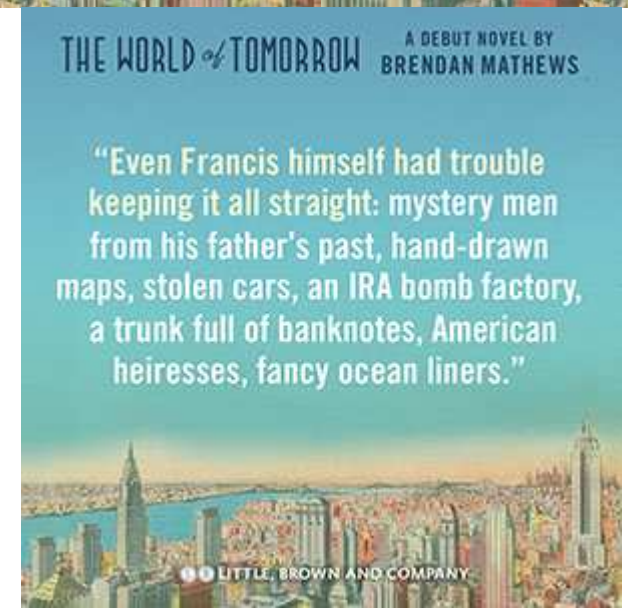
- **Author website** launched: BrendanMathews.com
- **Book trailer** posted to Little, Brown social channels, YouTube, and retailer pages



- **Book Club Outreach**
  - Little, Brown Book Club Hub selection for September

- Month-long sweepstakes promoted across Little, Brown social media: Enter for a chance to win ten copies of THE WORLD OF TOMORROW, Little, Brown swag, and a chance to Skype with Brendan for your book club
- Feature title in Book Club enewsletter, including personal note from Brendan and bonus content from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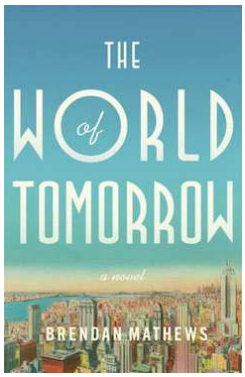
- **Graphics** for social media promotions
  - With blurbs, review quotes, and lines from the book
  - Ecard with bookseller quotes



- **Social media promotions** across Little, Brown social channels (reaching over 600,000 consumers)
  - ARC mailings to bookstagrammers and book ambassadors
  - Jacket back story with Lauren Harms
  - Photographs from 1930s New York and World's Fair shared with lines from the book
  - Photos of finished book in front of New York locations and lines from the book
  - Instagram Story and post shared revealing gorgeous end papers
  - Annotated and signed special edition for holiday giveaways
- **Independent bookseller outreach:**

  - ARC mailing to 400 bookstores
  - Signed copies sent to NEIBA attendees
  - Ecard designed with September Indie Next Pick stamp and nominations
  - Postcards sent to top indie accounts
- **Outreach to historical societies and New York locations** featured in the book, including:
  - New York Historical Society, Queens Historical Society, Bronx Historical Society, American Irish Historical Society, The Gotham Center for New York City History, and The Bowery Boys podcast
- **Consumer giveaways** on Goodreads (1,294 shelf adds)
- NetGalley promotions (2,178 impressions, 255 clicks to read)
  - Egalley available for download
  - Featured in July newsletter

제목 : THE WORLD OF TOMORROW
가제 : 내일의 세상
저자 : Brendan Mathews
출판사: Little, Brown & Co.
발행일: 2017년 9월
분량 : -
장르 : 소설/ 문학



* **"묘한 매력을 지닌 데뷔소설. 영리하고, 똑똑하고, 야망이 넘치는 세상을 풍성한 글과 감동으로 그렸다." – 퓰리처 상 수상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verybody's Fool*」의 작가 리처드 루소**
* **"실존하는 듯한 인물들과 설득력 있는 역사적 사실이 생생함을 제공하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작" – 펜/말라무드*(PEN/Malamud)* 상 수상작 「*The New Yorker Stories*」의 작가 앤 비티**

1939년, '브리타닉'호가 각양각색 손님들을 가득 싣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표 등급에 따라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먹는 음식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 화려하게 차려 입은 일등석 손님들이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는 저녁 식탁에는 스코틀랜드 출신 귀족이라는 앵거스라는 남자가 끼어 있었다. 몇 시간 전, 갑판 위에서 갑자기 몰아친 바람에 날아갈 뻔했던 어느 아가씨의 모자를 붙잡아 준 일로 초대를 받아 화려한 중국 도자기가 가득 놓인 식탁 앞에 앉게 된 것이다. 막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앵거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귀족이라고 했더니 그래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앵거스는 접시 양 옆에 족히 열 개는 되는 것 같은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중에 무엇을 들고 수프를 떠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를 지켜보는 이들 중에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은 프란시스이고,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감방에서 갇혀서 작은 숟가락 하나로 모든 음식을 먹었고, 온갖 작전과 뇌물로 겨우 이 배에 올라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알 턱이 없었다. 정말로 영국의 귀족인 줄만 알고 신기함과 존경스러움이 섞인 눈을 반짝이며 프란시스를 바라보는 미국인들, 곧 뉴욕에서 개최될 세계박람회를 보기 위해 배에 오른 유럽 사람들에게 그는 동생이 사냥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데려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 브리타닉 호의 다른 곳에서 턱시도를 입고 말쑥하게 차려 입은 다른 청년들에게 둘러싸인 동생 마이클은 실제로 많이 다쳤었다. 그러나 마이클 역시 10일 전까지만 해도 신학대학에 '갇혀' 곧 다른 나라로 선교활동을 떠날 참이었다.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프란시스는 불손한 책과 물건을 사람들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정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신세였고 마이클은 전 세계의 우울한 나라들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이름도, 신분도 모두 속이고 유람선 일등석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귀족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두 사람은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간 형을 찾기 위해 이 배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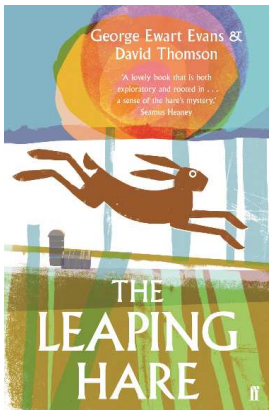
이야기는 두 번째 세계대전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1939년 6월, 일주일간 미국으로 건너간 두 아일랜드 형제를 쫓아간다. 사고로 귀도 멀고 말도 할 수 없게 된 동생을 데리고 뉴욕으로 건너간 프란시스는 브롱크스에서 산다고만 알고 있는 재즈 뮤지션, 형 마틴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뜻밖의 인물이 끼어들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톰 그로닌이라는 은퇴한 깡패가 두 사람을 협박하며 뒤를 밟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초대형 박람회를 앞둔 뉴욕은 행사 슬로건처럼 평화롭고 더욱 풍요로운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며 흥겨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데 영국에서 조지 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땅을 처음 밟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들썩인다. 이 엄청난 행사와, 비밀을 숨긴 프란시스 형제의 위태로운 여행이 서로 겹치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시작된다. 피와 사랑, 기회로 서로 거미줄처럼 엉킨 사기꾼, 정치인, 예술가, 음악가, 깡패, 그리고 권력자의 정부가 여기저기서 엉키고 각자가 놓지 못한 과거의 일들이 되살아난다.

전쟁이 코앞에 온 줄도 모르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뉴욕을 무대로 독특한 인물들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마음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랜든 매튜스(Brendan Mathews)는 아일랜드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이어 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바드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1년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소설 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Best American Short Stories」, 「Cincinnati Review」, 「Glimmer Train」, 「Virginia Quarterly Review」 등 영국과 미국의 여러 간행물에 작품이 소개됐다. 단편 모음집 『LEAVETAKINGS』도 출간될 예정이다.

NON- FICTION



제목 : THE LEAPING HARE
가제 : 토끼 이야기
저자 : George Ewart Evans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7년 4월 6일(초판: 1972년)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예술

*** "탐구적이면서도 토끼의 신비함이 담긴 사랑스러운 책" – 노벨 문학상, *T.S* 엘리엇 상 수상 시인 셰이머스 히니**

*** "과학과 문학, 신화, 미신, 의미론, 수렵활동, 그리고 시골 사람들의 풍성한 이야기를 한 솥에서 보글보글 끓인 듯한, 아주 반가운 책이다" –「옵저버」**

아이들 동화책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동물,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게 생각하고 각종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용품에도 귀여운 모습으로 자주 활용되는 동물인 토끼를 샅샅이 파헤친 흥미로운 책이 재출간됐다. 1972년에 영국 구전 역사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저자가 처음 발표한 이 책은 야생토끼의 습성과 생물학적인 특징부터 시와 민화, 역사,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토끼의 이야기를 총망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 토끼'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토끼는 달 속에서 절구를 찧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지는 것처럼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토끼는 또 다른 형태, 의미의 신비로운 동물로 사람들과 함께 했다. 파면 팔수록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샘솟는 토끼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시골 지역에서 야생 토끼를 자주 접하면서 처음 이 귀엽고 신기한 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숲 곳곳에 토끼가 바글바글하다가 몇 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는 것에 놀란 저자는 알고 보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무 그루터기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없이 미동도 않고 모여 있는, 그래서 풍경처럼 보이는 뛰어난 위장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왜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어떻게 터득한 걸까?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겁 많은 동물로 묘사되는 토끼의 실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길을 건너고, 고속도로 갓길을 수백 미터씩 질주하는 토끼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 놓고 잠시 위험한 장난을 친 말괄량이처럼 원래 있던 곳으로 달아나는데, 과연 정말 토끼는 우리의 인식처럼 겁이 없을까? 짝짓기 시기에 나타나는 별난 행동들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 공간에 모여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서 뭘 하는 걸까? 앞발로

서로를 툭툭 치거나 작은 주먹으로 바닥을 퉁퉁 치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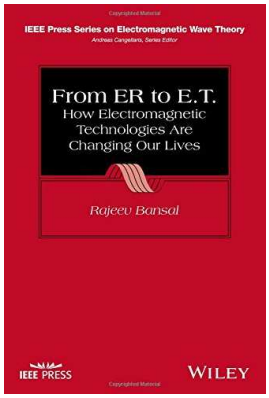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최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사냥꾼, 농부, 농장 일꾼들은 물론 자연사를 연구해온 학자들, 동물학자, 과학자들을 만났다. 이들의 답을 정리하면서, 토끼의 행동과 습성에 관한 해석, 사람들의 시각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행동에 관한 이 다양한 해석만큼 전 세계의 신화, 설화, 전래동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토끼의 모습, 의미, 상징도 제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그저 귀여운 동물에 머물지 않고 이토록 다채로운 모습과 의미로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토끼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토끼에 관한 신기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와 미처 몰랐던 토끼의 놀라운 특성을 모두 접할 수 있다.

<목차>

감사의 말
1. 왜 하필 토끼?
2. 자연사: 고대와 근대
3. 산토끼
4. 아일랜드 토끼
5. 일반 토끼
6. 토끼 사냥
7. 고대인들이 토끼를 잡는 법
8. 음식과 토끼
9. 신화와 토끼
10. 달과 토끼
11. 불과 토끼
(이하 생략: 총 17장, 부록 1-2로 구성)

<저자 소개>

조지 이워트 에반스(George Ewart Evans, 1909-88)는 구전 역사를 선구한 학자이다. 1948년 가족들과 함께 서포크 블락스홀 지역에 정착하고 주변 지역의 방언과 시골 지역의 삶을 이야기하며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전 농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녹음기를 활용하여 이스트 앵글리아 지역의 방언과 시골 풍습, 전통, 설화에 관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11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From ER to E.T.

가제: 응급실과 ET

(부제: 우리의 일상을 바꾼 전자기 기술)

저자: Rajeev Bansal

출판사: Wiley- IEEE Press

발행일: 2017년 1월 4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과학(물리학)

*** 전자기 기술의 탄생부터 최신 활용 사례,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차갑게 식은 커피나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집에서든 카페에서 와이파이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자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론,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RFID 칩을 이식 받아 사생활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과도한 전자파가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지 오래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전자기 기술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제와 같이 병원 응급실에 사용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부터 전자기 기술로 새롭게 열릴 미래의 어느 날 ET와 실제로 만나게 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의 놀라운 가능성과 활용성을 소개한다. 저자가 정기적으로 기고해온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매거진의 칼럼과 독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기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전자기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도 모두 읽을 수 있는 폭넓은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장의 주제에 맞는 글들이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퀴즈가 제시되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각각 별개의 힘으로 여겨지던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처음을 제시한 사람은 제임스 맥스웰이다. 187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양전하와 음전하의 작용을 통해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밝혔다. 저자는 전자기 기술의 역사와 하나의 이론으로 출발한 이 기술을 처음 확립한 인물들, 과학적인 근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구의 범위를 넘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계의 오랜 탐사 활동이 공상과학 소설로 끝날 것인지 현실이 될 것인지, 전자기 기술을 이 난제를 푸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제시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자파와 건강의 관계도 꼼꼼히 살펴본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영향, 최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의 과잉행동 문제와 전자기장의 관계, 송신탑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노출 경로 외에 인체가 전자파에 밀접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경로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생물의학 분야에서 심장질환과 암 등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전자기 기술은 일상생활과 우주 탐사 외에도 방어 기술, 통신 기술, 산업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술로도 이미 널리 자리를 잡았다. 범죄자를 관리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열 기술로 활용하는 경우 등 이러한 내용들도 각각의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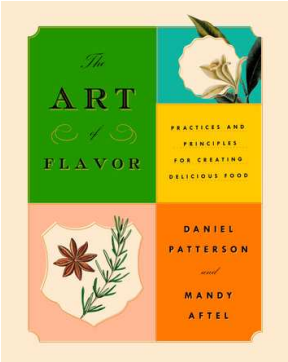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기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 거인의 어깨
2. 지구, 그리고 더 먼 곳까지
3.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4. 전문가의 시각: 윤리와 법률
5. 전자기장이 건강에 주는 영향
6. 생물의학적 활용
7. 방어기술로의 활용
8. 미국과 산업계의 활용
9. 통신 시스템
10. 평생 학습
맺음말

<저자 소개>

라지브 반살(Rajeev Bansal)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응용물리학을 공부하고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코네티컷 과학·공학협회, 전자기장 학회 회원이다.「IEEE Antenna and Propagation Magazine」,「IEEE Microwave Magazine」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ART OF FLAVOR
가제 : 맛의 기술
저자 : Daniel Patterson, Mandy Aftel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실용(요리)

*** *LA* 타임스 선정 *'2017*년 최고의 요리 책' 열 권에 포함**
*** "향과 맛에 관한 정교하고 균형 잡힌 안내서. 향을 대하는 두 사람의 진지한 태도와 자유로우면서도 제한적인 요리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Art of Simple Food*』의 저자, 앨리스 워터스**
*** "새로운 요리책. 패터슨의 요리처럼 글도 간결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약간의 명상적인 분위기가 가미되어 있다." – 「뉴요커*(The New Yorker)*」**

텔레비전을 켜면 언젠가부터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요리 전문가가 나와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맛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요리로 대결을 하고 심지어 요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외딴 곳에 모여 음식을 해먹는 모습을 리얼리티 쇼처럼 보여주기도 한다. '뇌섹남'에 이어 '요섹남'도 유행어에 추가될 만큼 요리사라는 직업도 각광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를 통해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소개하며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많다.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전문 요리사이자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맛을 연구해온 유명 요리사와 '향'의 특성과 배합을 연구해온 향 전문가가 두 번째로 함께 완성한 이 특별한 요리책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온 요리와 음식에 관한 관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바로 음식의 '맛'이다. 쉽고 간단한 요리,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요리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반영하듯 인공 조미료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맛을 잘 살리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 "훌륭한 음식은 접시에 담긴 시각적인 모습과 혀로 느끼는 맛 외에 코로 느끼는 맛과 향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 저자는 음식의 향이 왜 중요한지, 재료에 맞게 어떤 조리 방법과 양념, 다른 재료와의 배합으로 그 적절한 향과 맛을 살려낼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징이 충분히 배어나고 각각의 맛과 향이 조화를 이룬다.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일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저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것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지닌 맛과 향이 최대한 배어나올 수 있도록 조리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소개한다. 음식의 맛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규칙과 '나침반'을 비유로 설명

한 적절한 맛의 조합, 재료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너무 강한 향은 다른 재료의 향을 빌어 조금 '묻히게' 만들고 중요한 맛은 '고정'시키는 방법, 조리 방법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재료의 맛, 그리고 섬세하게 맛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곱 개의 다이얼까지, 두 사람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귀중한 맛내기 비결과 원리를 70개의 레시피와 함께 배울 수 있다.

아무 재료나 넣고 빨리 만들어내는 한 그릇 요리가 지루할 때, 인체가 맛을 느끼는 과정부터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미각과 후각의 특성부터 이를 요리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까지 음식과 관련된 유용하고 신기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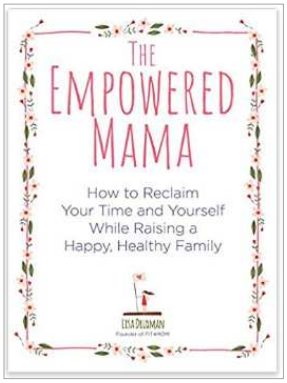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편향된 시각이 담긴 맛의 역사
2. 사과에 관한 생각: 재료
3. 맛을 내는 일
4. 맛의 네 가지 규칙
5. 맛의 나침반
6. 연금술: 고정하기, 묻기
7. 날 음식, 익힌 음식 그리고 오븐에 가열하고, 찌고, 구운 음식
8. 일곱 개의 다이얼

<저자 소개>

대니얼 패터슨(Daniel Patterson)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점 두 개를 받은 레스토랑 'Coi'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 분야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 최우수 요리사 부문 수상자이자 「푸드 앤 와인(Food & Wine)」매거진 최우수 신인 요리사상 수상자이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샌프란시스코 매거진」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로는 『Coi: Stories and Recipes』(2013) 등이 있다.

맨디 아프텔(Mandy Aftel)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향수 제조자(조향사)로, 다양한 요리사, 칵테일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향과 음식에 관한 전시회, 협의회 등에 참여해 왔다. 저서로는 『Fragrant: The Secret Life of Scent』가 있다.



제목 : THE EMPOWERED MAMA

가제 : 건강한 엄마

저자 : Lisa Druxman

출판사: Fair Winds Press

발행일: 2017년 11월 2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육아/건강

*** 일하는 엄마, 아이만 열심히 키우는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가족,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실생활로 바꿀 수 있는 전략**

아내, 엄마, 친구, 요리사, 간호사, 집안일 하는 사람, 사업가, 직장인, 운전사, 자원봉사자, 개 산책 시키는 사람... 한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역할을 대충 정리하면 이 정도다. 이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도맡거나 심지어 더 많은 타이틀을 달고 사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는 당사자는 늘 일을 '더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리저리 쫓기느라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아내 노릇도 잘 못하고 집은 엉망이고 일도 동료들에게 밀리는 등 늘 걱정하고 아쉬워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가꿀 시간이나 운동하고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십상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혼자 쉬다니?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성 스스로가 비난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시간을 거부한다. "그런 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엄마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 전역에서 이들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백 곳을 운영해온 저자는 이것이 단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책임감과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이상,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더 애를 써도 여성 스스로 만족스럽게 무언가를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든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든 위에서 나열한 저 수많은 역할들을 모두 벗은 사람,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균형이 잡혀야 다른 역할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바쁜 일정과 수많은 책임 때문에 시간과 여유를 내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엄마들을 위해, 저자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법, 올바른 식생활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거창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24시간 아이와 가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심을 반대로 돌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 될 수 있다. 엄마의 휴식은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더 열심히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충전의 시간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 자신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고 엄마로서의 삶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산다'는 핑계로 수많은 엄마들이 자신을 챙기지 못한 채 육아며 가사일, 직장 생

활을 병행하며 헐레벌떡 살아가지만 올바른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엄마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아이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아이와 가족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생활을 가족 전체에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엄마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남들도 잘 챙긴다는 원리는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엄마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책은 저자의 소개처럼 숨 넘어가게 바쁜 엄마들에게 '산소 마스크'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고민의 무게를 내려놓고 좀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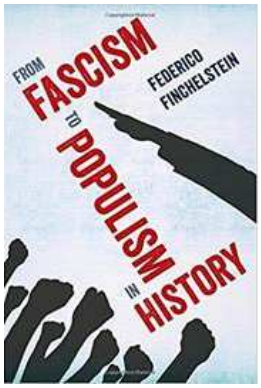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라
2. 목적 찾기
3. 시간 만들기
4. 습관 바꾸기
5. 생각을 바꿔야 생활이 바뀐다
6. 엄마처럼 앞장서기
7. 자신과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8. 모성의 힘
9. 건강한 가정
10. 가족과의 유대감
11. 놓아야 할 과거의 유산
12. 축하합니다!

<저자 소개>

리사 드럭스만(Lisa Druxman)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FIT4MOM'의 창립자이다. 미국 전역에 300여 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는 엄마들을 위한 미국 최대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DVD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으며 저서로는 『Lean Mommy』 등이 있다.

제목 : 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가제 :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역사
저자 : Federico Finchelstein
출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정치/역사



*** "현 세기 정치사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책" – 『*The Birth of Fascist Ideology*』의 저자 지브 스턴헬**

*** "미국의 예외주의에 반기를 들고, 현대 정치와 사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툴을 제공한다." – 『*Allende's Chile*』의 저자 타냐 하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전문가들은 파시스트라 칭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는 포퓰리스트라고 할 때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파시즘과 포퓰리즘은 무엇이고, 두 이론은 서로 관계가 있을까? 역사학자이자 파시즘, 포퓰리즘 이데올로기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저자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최근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한 시점까지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며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간다. 동일한 역사에 속해 있고 자주 혼동되는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전혀 다른 정치적, 역사적 궤도를 따라 움직여 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 파시즘, 그리고 전후 시기에 시작된 포퓰리스트 운동을 조명하며 저자는 주요 국가 몇 곳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견지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문화의 실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찰한다.

포퓰리즘은 그 자체가 분리된 정치체제로 볼 수 없으며, 정반대되면서도 닮은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체제와 공존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파시즘이다. 저자는 풍부한 역사적 근거와 이론적인 바탕을 토대로 긴 세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과거에 그랬듯 현 시대에도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경계가 포퓰리즘으로 인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인 후안 페론, 프랑스 국민전선당 대표 르 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의 성장과 독특한 특징은 제각기 다른 정황적 배경이 존재하며 결코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견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꿈꾸는 현 시대의 포퓰리즘이 힘을 얻으면 국가 제도는 포용력을 잃고 훨씬 더 권위적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처럼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포퓰리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처음 중대한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과정,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변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과거의 흔적이 재등장했다고 해서 과거가 그대로 현재가 될 수는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네오파시즘과 포퓰리즘은 현재의 형태가 되기까지 중요한 역사를 거쳐왔고 따라서 대중과

정치계가 이 두 이데올로기를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에 처했다는 불안한 견해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하려면 파시즘과 포퓰리즘이 맨 처음 형성된 이유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책 전반에 걸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려는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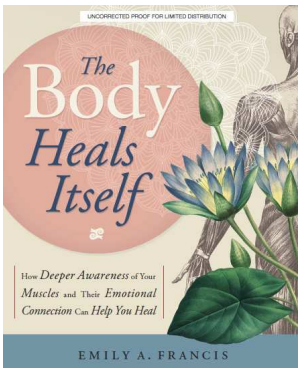
<목차>

서문
머리말: 과거의 관점에서 본 파시즘과 포퓰리즘
1. 역사 속 파시즘
2. 역사 속 포퓰리즘
3.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놓인 포퓰리즘
맺음말: 다시 고개를 든 포퓰리즘

<저자 소개>

페데리코 핀켈슈타인(Federico Finchelstein)은 뉴욕 뉴스쿨과 유진 랭 칼리지에서 역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폴리티코(Politico) 」, 「넥소스(Nexos)」 등 미국과 유럽, 남미 지역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Transatlantic Fascism』,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Dirty War』 등이 있다.

제목 : THE BODY HEALS ITSELF
가제 : 근육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
저자 : Emily A. Francis
출판사: Llewellyn Publications
발행일: 2017년 12월 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



*** 근육에 담긴 몸과 감정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방법**

중국 전통의학에서 신체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감정 상태를 좌우한다고 보고, 하루 동안에도 각 기관이 가장 원활히 기능하는 시간대와 가장 약한 시간대가 있다고 여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신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감정 상태와 에너지가 다르다고 본다. 마사지 요법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관련통'을 찾을 수 있다. 몸의 어느 한 곳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처럼 인체의 에너지 패턴과 신경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는 예시와 활용 사례는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체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듯 우리 몸도 나름의 언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의 상태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중요한 인체의 소통 수단이 제대로 주목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근육이다.

근육에 인체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와 치유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미 운동 요법과 근육 검사의 형태로 근육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적인 상태에 접근하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부위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거나 약화되는 반응을 통해 감정 상태와 신체의 건강 상태, 심지어 음식에 대한 민감성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는 근육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흘려 보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뿐이다. 저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육으로 전달되는 이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몸과 마음이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근육이 하는 말을 듣는 법을 깨우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감정적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근육에는 정서적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근육 자체가 감정을 만들거나 다른 상태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근육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근섬유와 근막, 즉 근육을 둘러싼 얇은 섬유 조직 내부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세밀하게 저장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따라 이렇게 근육에는 좋은 기억과 함께 트라우마 기억도 남아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물리적인 힘이 발생되는 곳으로 여길 뿐 그 이상의 가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근육질 몸매'라는 표현에 고스란히 담겨 있듯이 근육은 '키우는' 대상이고 그 목적은 강인한 체력이나 근사한 외모 정도에 국한된다. 그러나 뜻밖에도 근육과 감정의 밀접한 연결고리로 인해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관한 인체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 또한 이 메시지는 가시적인 변화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감정적 상태로 드러나기 전, 변화가 시작된 초기에 근육에서부터 나타나므로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2부에 걸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인체의 정보를 적절히 읽는 방법을 설명한다. 1부에서는 감정과 근육이 어떤 관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부에서는 근육 부위별로 어떤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근육의 놀라운 기능에 주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 특별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잃어버린 퍼즐 조각: 전체론적 치유와 감정 근육
1부. 감정과 신체 근육의 관계
1장. 근육, 기억, 감정, 그리고 연결고리
2장. 인체의 감정, 정신, 에너지
3장. 정서적 분출과 에너지의 기능
2부. 근육 부위별 감정
4장. 등 – 배신, 보호, 지지하는 감정
5장. 엉덩이 – 공격성, 억제
6장. 다리 – 앞으로 나아가거나 현재에 묶여 있도록 하는 원천
7장. 복근, 횡격막, 허리 근육 – 가장 취약한 부분
8장. 팔, 어깨, 손 – 사랑의 수용, 활기찬 에너지
9장. 흉근 – 모든 것의 핵심이 담긴 곳
10장. 머리, 얼굴, 턱 – 명료성과 보다 넓은 시각
11장. 목 – 스트레스, 유연성, 인지, 생명
12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치유의 힘이 발산된다
부록A, B, C

<저자 소개>

에밀리 A. 프란시스(Emily A. Francis)는 에어로빅과 킥복싱,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해 왔다. US 오픈 태극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마사지 치료 학교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Stretch Therapy』(Blue River Press, 2013) 등이 있다.